

종합

“섬개발 투자 인프라 확충 급선무”

외국인 투자자들 한결같이 전남도에 요구 中 관광객 비자 면제 등 여건 개선도 시급

“전남도의 섬개발 프로젝트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한다면 섬지역 인프라 확충과 주고객으로 삼고 있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등이 급선무다.”

전남도가 최근 서울에서 가진 해외투자상담 테이블에 나온 외국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영국의 관광 및 지역개발전문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전남도에 신안지역 섬을 묶어 추진중인 ‘갤럭시 아일랜드(Galaxy Island)’ 프로젝

트 등 섬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도해가 지닌 천혜의 경관과 잘 보존된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투자사 관계자들은 섬개발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는 섬과 육지,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등 도서지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일부 섬과 섬 사이는 연도교로 이어져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방문객들의 이동이 불편하고 숙박시설 등이 태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섬개발 프로젝트의 주된 타겟인 중국인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 면제 등 중앙정부의 행정지원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관광객들은 수학여행단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자치단체나 교육기관의 초청장이 필요하다. 또 경우에 따라 일정 금액을 예치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관련 부처에 외국인 입출국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건의해 해외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일해공원’ 이름 쓰지말라

6·18 광주민중항쟁 부상자회 회원과 가족들이 지난 20일 경남 창원 시 사립동 경남도청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호를 따 합천군이 만든 ‘일해공원’ 이름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道 ‘스마트 하이웨이’ 유치 나선다

(지능형 차세대도로)

건교부 시범도로 사업 ... F1(포물러원) 연계

오는 2010년 F1(포물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전남도가 이와 연계해 정부의 ‘스마트 하이웨이’ 개발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건설교통부가 시범도로로 개발키로 한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이 F1대회의 이미

지에 맞는 것으로 보고 이를 유치하기 위해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정부의 시범사업 구간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고속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고속도로 구간을 활용한 ‘무제한 스피드웨이’를 만들어 F1의 스피드와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만들

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아직까지는 구상 단계지만 무안공항과 F1 경주장을 잇는 직선도로나,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구간,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구간 중 일부를 ‘스마트 하이웨이’ 시범도로 구간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로 2012년까지 도로 부문 핵심기술 개발과 도로에 지능을 부여할 수 있는 첨단 통신체계 구축 그리고 도로-자동차 연계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2016년까지 2단계로 스마트 하이웨이 시범도로 건설

을 위한 대상 구간 선정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스마트 하이웨이는 스피드를 상징한다는 측면에서 F1의 개념과 딱 들어맞는다”며 “이 사업을 유치할 경우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스피드 산업과 연계, 전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스마트 하이웨이=정부가 2016년까지 1천5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키로 한 첨단도로. 기존 도로에 비해 안전성, 이동성(설계속도 시속 160km), 편리성, 쾌적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도로로서, 현재의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지능형 차세대 도로다.

‘애 보고 살림하는 남성’ 15만명

전문직 여성 증가 ... ‘專業主夫’ 급속 늘어

전문직 여성의 증가와 관철은 일자리의 감소 등으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살림을 떠맡는 남자가, 이른바 ‘전업주부(專業主夫)’가 빠르게 늘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활동을 하는 남자는 모두 15만1천명이었다고, 가사활동을 하는 남자는 14만6천명이었다.

이는 3년 새 42.5% 증가한 수치

로 2003년에는 육아 3천명, 가사 10만3천명 등 모두 10만6천명의 남자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초등학교에 입학 전인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해 집에 있는 사람들 ‘육아’로, 초등학교 이후 상인 자녀를 돌보면서 자기 가정에서 가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사를 돌볼 책임이 있었다고 답한 사람들 ‘가사’로 분류하고 있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는 남성의 수가 늘어난 것은 최근 전문직 여성의 증가로 남성에 비해 높은 수입을 올리는 여성이 많고 전통적인 남녀의 역할 관계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육아·가사활동을 하는 남성이 급증한데 비해 지난해 육아·가사활동을 하는 여성은 662만2천명(육아 150만2천명, 가사 511만8천명)으로 2003년 655만2천명(육아 149만9천명, 가사 505만3천명)에 비해 1.1% 증가하는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진짜 미치겠네

한·일 연안 교류회의 참석 박준영 전남지사 방일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일본 사가현 가라스호텔에서 열리는 ‘제16회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 교류회의’에 참석한다.

박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2012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 도시 건설 및 동북아 불투·교역 거점 구축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일 해협연안 시·도·현 지사 교류회의’는 8개 시·도·현 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

‘억대 부자’ 매년 9천명씩 는다

작년 7만7천여명

억대 고소득자가 2000년 이후 해마다 9천명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국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 수는 2000년(신고년도 기준) 2만2천368명에서 2006년 7만6천645명으로 모두 5만4천277명이

늘어 연평균 9천46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까지 2만명대에 그쳤던 억대 고소득자는 2001년 3만92명, 2002년 3만9천700명을 기록한데 이어 2003년에는 4만5천617명으로 4만명대를 돌파했고 2004년에는 4만9천682명에 달했다.

2005년 들어서는 무려 1만5천778명 증가한 6만5천460명으로 6만명대를 넘어섰으며 2006년에 1만1천185명 늘어난 7만6천645명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로스쿨 교육부안 수용 못한다”

비대위, 국민 대토론회 개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과 관련 긴급 확대 집행위원회 회의를 갖고 교육부가 제시한 총 입학정원안을 거부키로 결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이번 안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현재의 변호사 배치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개혁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교육부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합리적인 선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24일에 교육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석종현 단국대 교수, 이상영 동국대 법과대학장, 장재욱 중앙대 법과대학장 등 각 대학 법대 학장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여수교동시장공고 제2007-1호

시설공사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교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나) 위치: 전남 여수시 교동 교동시장 일원
(다) 사업량: 면적 약 2,340㎡(2007년 사업분: 1,800㎡ @2008년사업분: 1,040㎡)
(라) 공사금액: 2,002,000천원 범위내

2. 입찰방법: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Turn-key)

3. 입찰신청일
(가) 일시: 2007년 10월 29일(월) 오후 2시
(나) 장소: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
※ 협정설계비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당일 참석 확인증 발급)

4.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자법령 및 등원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등록구분별 중견중소사업 등록을 받은 업체이어야 함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업체
(다) 면허보유를 위한 공동도급방식이 가능하며 시공사를 대표자로 한다.(공동도급 방식의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참조)
(라) 공동수급제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제를 구성하여 중견중소사업 참가 불가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공개정보 공개사 10억이상 중견중소사업 실적에 있는 업체

5. 입찰등록
(가) 등록기간: 2007년 11월 08일~11월 09일 오후 5시까지
(나) 등록장소: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

6. 낙찰과 결정 방법
(가) 1차심사: 입찰등록서류의 사실무위 및 사정명령, 경영상태 등 심사
(나) 2차심사: 기본 설계 및 계약설명회를 통한 심사, 1차 심사 결과와 합치하여 최고 득점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함

※ 제안설명회
· 기 간: 2007년 11월 12일(월) 오후 2시
· 장 소: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 사무실

7. 기타
(가) 현장설명회시 배부하는 입찰안내서 등 본 공사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한다.
(나) 등록서류 중 사본은 반드시 ‘원본과 같을’ 범위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다) 등록서류 미제출로 인한 부파제 규정에 경우 당 조합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권 자료가 대하어는 일체 열람 및 공개를 요구할 수 없고 소모되는 비용 또한 입찰자가 부담한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 조항 결정에 따른다.
(바) 자세한 사항은 여수교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사무실로 문의(☎ 061-666-377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2일

여수 교동시장 상점가 진흥사업 협동 조합 이사장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야간) 2008학년도 신입생모집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30명
▶ 4년제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가.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60%이내
▶ 6급이상의 공무원, 공사기업체 및 사회단체의 간부, 8년이상의 교직자, 군의 영관급 이상 장교, 의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나. 일반전형: 필답고사(행정학 및 법학 중 택일) 및 면접

2. 원서교부 및 접수
가. 특별전형 2007. 10. 22(월) ~ 11. 8(목)
나. 일반전형 2007. 10. 22(월) ~ 11. 15(목)

3. 연락처
가. 행정대학원 행정실 ☎ (062)530-2206
나.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pacnu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요강

1. 전형일정 및 장소

| 구분 | 일시 | 장소, 안내사항 |
|----------------|---|---|
| 지원서류 (일반전형) | 2007.11.7(수)~11.14(수) 17:00까지 | 전남대학교홈페이지(http://admission.chonnam.ac.kr/professional)에 접속하여 원서 작성 후 출력 |
| 지원서류 접수 (일반전형) | 2007.11.7(수)~11.13(화) 17:00 (마감 시간 내 도착까지 유효) | ○ 제출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행정실 우) 500-757 |
| | 참구 접수 (메일 08:00~17:00까지) | ○ 제출장소: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행정실 (용봉문화관 4층) |

2. 모집전공 및 모집인원

| 과정명 | 구분 | 전공 (수학인한) | 모집정원 (석사) |
|---------|----|-----------------|-----------|
| 석사학위 과정 | | 문화예술이론및기획전공(2년) | 13명 |
| | | 문화관광전공(2년) | 13명 |

3. 지원자격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08년 2월 이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제출서류
입학지원서 (1) 1부, 입학지원서 부본 (1) 1부, 입학전형료 납부영수증 1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출신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기소개계획서 1부

5. 기타사항
1. 웹 사이트 문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culture.chonnam.ac.kr)
2. 전화문의: 문화전문대학원 행정실 [T.062)530-1477-8]

금당부동산

☎ 223-7400 ☎ 016-632-5659
(위치: 충장로 5가 4거리 코너 2층)

투자
-소매등 지역특치 878평, 전원주택, 공장 등 저가, 시가는 평당 60만원이나 32만에 매도 2억8천
-우주발사기지, 교통군 병래도 주거지역 2000평 7천만원
-사할, 전원주택, 남평검문소부근, 2억

매도·교환
-운안동 벽산 빌딩 아파트 46평 내년 8월 입주, 계약금 2,500만원 납입했고, 현금 5천만원 더해 교환, 매도 3억3천
-광양읍 뒷가시 시가지, 고속도로 옆에 아파트 18평, 명당자리 전원주택 483평, 7,500만원
-광주읍 별장용 가든 땅 1,883평 건평 108평 화가나 작가의 창작실로 적합, 조경완비 은행 1억5천, 현금 1억이상 필요 하고 담보없는 불건과 교환 5억

매도
-공시지가에 매도, 총장로 4가 3층 건물 대 355 은평1억 매도 3억6,800만원
-금남로 5가 4층 건물 대 14 건평 44 전 세 4,400만원 2억5천만 매도 1억9천
-양동 특목장 상가 여관 대 139 건평 459 평 2억5천만 매도 2억6천
-충장로 5가 6층 건물 대 124 건평 497 평 5억5천만 매도 12억
-전대후문 문도부근 대 150 건평 120 2층과 지하는 광선 전세 8500만원 월 230만원 매도 5억5천

구합니다
부동산의 매도·교환·개발·건축 등의 각종 물건을 구하며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함께 일합니다
함께 하신 분을 모십니다.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손잡고 함께 할 분을 모시오니 찾아주시면 합니다.
-금남로 5가 우리은행과 엔터시네마 사이-